



전주서문통신

꿈·사랑·믿음으로
함께 성장하는
서문교육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 11길 19 ☎ 교무실 255-4383, 행정실 255-4384

2학기 학부모 장애이해교육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곳이며, 가정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곳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도움을 나누는 따뜻한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지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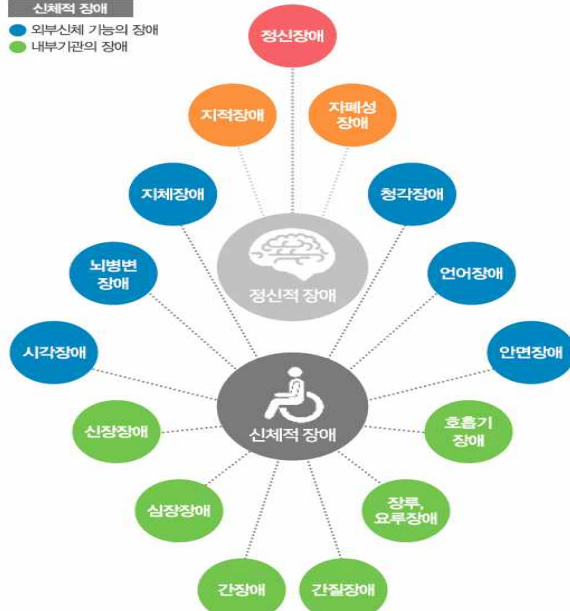
1. 장애인이란?

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도 조금 다를 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

정신적 장애
● 정신장애
● 발달장애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2.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 등록 장애인 수 250만명
미등록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500만명

등록 장애인 수
250만명

미등록 장애인 수
250만명



적어도 7가구 중에 1가구에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90% 이상이
사고, 질환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사실



장애인에 대한 예절, 알아둡시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

-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고, 도움을 주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기



바른 언어 사용

-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부를 때 '장애인'이나 '도움반'이라는 명칭 대신 이름 불러주기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하고, 반보 앞에서 걷기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할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청각장애인은 입 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기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문자로 소통하기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한자리에 오래 혼자 서 있거나 길을 헤매는 지적장애아동이 있으면 다정하게 관심을 물어 보고, 이름표나 소지품에 적힌 연락처로 알려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지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피하거나 놀리지 않기



지체장애인을 만났을 때

휠체어 이용자 등 지체 장애인이 거리에서 곤란해 하는 경우를 보면, 도움 없이 있는지 먼저 묻기



길거리에서 휠체어나 목발 이용자를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주기



2022년 9월 14일
전주서문초등학교장